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성탄의 계절,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와 희망을 전해 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립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을 찾아 나서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고,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 상승의 여파로 인해 차상위계층조차 위협받고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노령층의 안정된 삶이 확보되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제 침체라는 거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농촌 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처한 상황과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제각기 다른데, 이를 하나의 틀로만 재단하려니 정책이 현장을 비껴가는 경우가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한 행정리·읍면 가급 도입, 농촌 면 소재지에서의 단계적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읍면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고, 읍면에 예산권, 계획권, 재산보유권리권 등의 자치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은 중앙 집중식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풀뿌리

적극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한 행정리·읍면 가급 도입, 농촌 면 소재지에서의 단계적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읍면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고, 읍면에 예산권, 계획권, 재산보유권리권 등의 자치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은 중앙 집중식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풀뿌리

성탄의 빛으로 다시 서는 우리 농촌, 읍면 자치에서 희망을 찾다

다반사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에서 희망 찾기를 한다면, 희망의 빛을 찾아나서는 기회를 잡고자 한다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열쇠를 바로 농촌지역의 '읍면 자치권 강화'라는 시도를 통해 농촌에 희망의 빛을 찾아나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개척,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도입, 주민 주도 읍면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자치회 실행법안으로서 사회협동조합 설립 장려, 행정리 제도개혁, 읍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읍면 자치를 위한 민관협치 교육 의무화, 읍면 자치 지원 기본재정 확보, 그리고 주민총회·주민발안·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포함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문제 해결에 직

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약속합니다. 농촌은 생명의 터전이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뿌리이며, 농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주민 주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성탄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하나님교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교대 공동대표

희년은 거룩하다(레 25:10, 12). 희년은 사회화적이고 생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사회학적 의미가 있다.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한다는 점에서 희년에는 생태학적 의미가 있다. 희년에 담긴 사회학적 의미와 생태학적 의미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희년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이다. 레 25: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에서,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신 분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 희년에 가난한 사람에게 땅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주

성'인데, 이는 피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뜻한다. 롬 8장에는 이 세 가지 감수성과 깊이 관련된 세 가지 탄식이 있달아 나온다. 곧 '성령의 탄식'(롬 8:26), '인간의 탄식'(롬 8:23), '피조물의 탄식'(롬 8:22)이다. 이 세 가지 탄식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희년'에 이루어지는, (안식과 해방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자 사람을 위한 안식이며 땅을 위한 안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해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안식을 누리는 (안식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의 안식은, 바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옛세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신 '태초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재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창 2:1-3).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희년의 안식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실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역사 안에서 미리 맛보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계 21:1-4).

요컨대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 모두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을

희년의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

고 또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이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12절에서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온다. 곧 10-12절의 구조는 희년이 거룩하다는 희년의 신학적 의미가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주라는 희년의 사회학적 의미와 희년에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희년의 생태학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희년의 여러 의미들 가운데 신학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하여 실천하려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년 실천은 단순한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나 환경 보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희년 실천은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다. 첫째는 '신학적 감수성'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수성을 뜻한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한 감수성이다. 둘째는 '사회학적 감수성'인데, 이는 이웃에 대한 감수성을 뜻한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에 예민한 감수성이다. 셋째는 '생태학적 감수

재현하는 동시에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히 3:7-4:11에 의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며,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는 희년의 안식은, 태초의 안식과 종말론적 미래의 안식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는 분명하다(막 1:14-15, 행 28:30-31). 하지만 구약성경의 대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 희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안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모두 (해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안식을 누리는 (안식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에서, 태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비상계엄이 일어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아직도 많은 미완의 숙제들이 남아 있다. 지금의 정부는 '이재명정부'라고도 하고 '국민주권정부'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명하며 결국 정치를 주인인 국민이 한다는 의미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니 망국병을 치료하고 청년들의 가능성을 위해 기회를 주는 방법을 나누고 보완하고 실행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다. 특히 이 칼럼이 청와대의 대통령실에 도착해 실행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누구든 이 내용을 발전시켜 전해 줘도 좋겠다. 나는 빛고를 광주에서 청소년들을 돕고 미국남장로회의 선교사님

들을 알리고 해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광주의 청년들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 140만명의 인구 중 7천명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났다는 기사를 보았다.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문화적 혜택이나 더 좋은 직장을 위해 떠나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광주를 떠나는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 중에 하나는 5.18과 관련한 '피해의식'

다. 점심도 먹고 잠도 자고 여행 경비도 쓰고 갔다. 호남에, 경상도에서 20명 이상 500여 명이 넘게 왔다. 어떤 여성분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70살인데 호남 광주를 처음 와봐요. 와 보니 무섭지도 않고 넘 좋네요." 서울에서 가족이 70세 기념으로 호남에 여행을 오셨는데 똑 같은 말을 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70년 만에 처음 와봤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물 몰랐네요." 나는

더 발전시켜 타 지역의 여행에 대해 '화해지원금(?)'을 만들어 지원하라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너무나 많다. 2박 3일이나 3박 4일의 국내 여행비용의 60-80%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경제도 살리고 우리나라도 돌아보고 망국병도 어느 정도 해소 하는 경비로 나라의 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방법을 만든다면 청년들을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분열된 호영남의 치료와 나라사랑의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합 전남도회 전도목사
· 행북한 세상 선명한 미래1,2 저자

"국민주권 정부에게 바란다!"

이다. 하나는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해도 지방출신이라는 한계를 가진 '배배의식'이 있다고 본다. 여러 이유로 광주를 떠났다. 뭔가 해줄 수 없는 어른으로써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게 되었다.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이니 노력을 하려고 한다. 지난 해 빛고를 광주의 선교사님들의 뜻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광주의 양립동을 찾은 팀은 180여 팀이었고 2,900여 명이였다. 외국에서도 10개국 200여 명이 방문을 하였

깜짝 놀랐다. 호남인 광주를 무시 위하기도 하고 오기가 힘들었나 보다. 나는 호남과 영남이 둘로 쪼개져 소모전을 하고 지역감정을 들먹이는 정치권에 제발 멈춰달라고 사정하고 싶다. 소모전이 망국병이며 치유하기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이후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단탈퇴공고

- ◆ 교 회 : 바른길교회
- ◆ 교단소속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 바른길교회

위의 바른길교회는 개척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노회에 가입된 교회였으나 주후 2025년 12월 30일(주일) 본교회당에서 공동회 거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습니다. 본 교회는 광주노회에 탈퇴서를 2025년 12월 10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의 교회는 교단 탈퇴를 결의한 이후로는 귀 교단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아니함을 정중히 공고합니다.

주후 2025년12월11일

바른길교회 당회장
박영일 목사의 교인회일 일동

전도용품·기념품·기획상품

전도용품

-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항상 기억할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100원~200원대)
- 전도 및 심방시 사용 할수 있는 심방 전도용품

기념품&행사용품

- 위임, 임직, 헌당 등 각종 행사에 맞는 제품
- 초창정, 식순, 기념패, 기념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성경과 교회가 디자인 된 주일학교 가방 및 전도용 가방
- 고급타월 및 우산, 예배상, 무릎담요

기획상품

- 핸드 페인팅 도자기 그릇
- 강화유리접시
- 전통용가전기
- 키친아트 파카글라스
- 아름다운 문양의 공기대접
- 다양한 그릇, 전화, 생활용품

(이 모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대경물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5-35 [전대 치과대학 맞은편]
TEL.062)430-5635 FAX.575-5635
H.P.010-2662-5440

직원(관리실장) 채용공고

광주벚엘교회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직 책 : 교회관리직원(관리실장)
- 인 원 : 1명

■ 담당업무

- 교회 관리업무 총괄
- 교회 본관/부속건물 관리 및 문단속 등
- 교회 공예배 및 특별행사시 필요 물품 관리 및 협조
- 새벽기도회 예배 준비 및 협조(조명) 등
- 격주 월요일 당직(주중 대체휴무)
- 교회 주변 환경 정리(쓰레기 처리 등)
- 교회 사역 및 행사시 차량 지원(전도대 등)
- 교회 인쇄(주보 등) 작업 및 삼지 작업
- 각종 시설물 점검 관리 및 협조
- 소방 안전 관리자 업무 등
- 헌금봉투 관리 등

■ 자격요건

- 세례교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분
- 교회 관리업무 유경험자 우대
- 관련 경력자 우대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본교회 양식, 사진첨부, 신앙이력 포함)

- 세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담임목사추천서(가능할 경우)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사본

■ 접수방법 및 기간

- 접 수 : 이메일 접수 또는 광주벚엘교회 사무실 방문 접수
- 이 메 일 : kjbethel1979@hanmail.net
- 연 락 처 : (062) 367-1004 교회 행정실
- 접수기간 : 2025년 12월 23일(화)까지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급여 및 기타

- 근무시간, 급여체계, 복리후생, 고용형태 등 면접시 안내

■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벚엘교회 -